

고비 넘겼으나 '불씨' 남아

조계종 '합동징수' 합의... 교계 평가

“종단이 실익을 쫓겠다”
“분리징수 가능성이 남아있고 자율권까지 포기한채다”
산문폐쇄 시한을 하루앞둔 14일 조계종과 정부의 문화재관할료와 국립공원 관련 합의 내용을 보는 교계의 시각은 양분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는 합의가 됐지만 교계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이번 합의에서 조계종이 무엇보다 큰 소득으로 꼽는 것은 자연공원에 공원내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수리 보조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강제조항을 신설키로 한 것이다.
“공원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사찰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자연공원에 법에 명문화 한다”는 합의사항 제2항은 그간 조계종이 꾸준히 제기해 온 자연공원에 개정 문제의 핵심이 실려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실익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계종이 자연공원에 제33조에 신설할 것을 요구한 개정안의 내용은 ‘당해년도 입장료 수입액과 입장료 수입에 문화재가 기여한 정도에 따라 지원한다’는 조항. 그러나 내부부족은 ‘...지원할 수 있다’를 고집했다. 결국 최근의 분리징수 문제의 협상과정에서 내부부가 ‘...지원 한다’는 조계종 의견을 전

조계종이 가장 강력히 주장했던 공원입장료의 폐지 문제는 이번 합의에서 일단 유보적인 분위기로 남았다. 합의사항 3항인 ‘국립공원입장료 폐지문제는 국가재정 형편등을 고려하여 검토 추진한다’는 대목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다.
총무원측은 “일단 내부부가 폐지의 의지를 보인 점은 진전이며 향후 종단이 이 문제를 꾸준히 제기해 반드시 폐지시킬 방침이다”고 설명했다.

입장료 폐지 시한 정해야

그러나 이 3항은 해석하기에 따라 공원입장료 폐지는 소원해 질 수도 있다는 반론이 거세다. 국가재정형편 등을 고려한다는 것의 한계가 매우 불분명하다는 지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9월 22일 발표한 성명에서 “공원입장료는 국가 예산에 비해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으므로 당연히 정부가 감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점을 감안, ‘정부재정 형편의 고려’는 설득력이 약하다는 것. 때문에 언제부터 폐지토록 한다는 시한을 확약 받지 못한 것은 큰 아쉬움이라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조계종 총무원이 협의과정에서 관할료위원

시월명	문화재관할료			
	'96 최종	'97 인상 결정액	'97.9 현재징수액	합의 조정
19개소	1,500~700	2,000~1,000	1,500~700	1,500~1,000
화엄사	1,200	1,500	1,500	1,400
천은사	700	1,000	1,000	1,000
연곡사	700	1,000	1,000	1,000
쌍계사	1,000	1,200	1,200	1,200
동화사	900	1,200	900	1,000
갑사	900	1,200	1,200	1,000
신원사	900	1,200	1,200	1,000
선종사	1,000	1,200	1,000	1,200
법주사	1,300	1,500	1,500	1,500
내장사	800	1,000	1,000	1,000
백암사	1,000	1,200	1,200	1,200
백암사	1,500	2,000	1,500	1,500
백암사	700	1,000	700	1,000
월정사	1,000	1,200	1,200	1,200
대전사	800	1,200	800	1,000
구룡사	800	1,200	1,200	1,000
회암사	700	1,000	700	1,000
도갑사	800	1,000	1,000	1,000
내소사	800	1,000	1,000	1,000

임 스님들이 14일 오전 총무원을 방문 했을 때 정부와 협의할 내용을 설명했고 본사주지 모임의 요구에 따라 협의에 함께 동행할 것을 제안했다”며 “그러나 스님들은 협의안에 대해 ‘자율권 포기’는 지적했으나 협의불가 입장은 밝히지 않았고 동행의사도 없음을 밝혔다”고 말했다.
종단의 합의 결과가 발표된 후 설소스님은 “총무원장 월주스님이 입장료 폐지는 1년 내지 2년내로 확실하게 된다고 확인을 해 협의안들이 입장료 폐지 이전의 경과초치인줄 알았다”며 최종 협의안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정부와 최종 합의를 한 총무원과 ‘산문폐쇄 결의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는 본사주지모임의 향후 행보가 심상치 않을 것이라는 예견이 팽배하다.
교계 일각에서는 그간 정부를 상대로 갈등해 오던 종단이 같은 사안인 관할료 문제로 내부갈등을 겪는 것은 대외적으로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입장에서 ‘지혜로운 해결’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임연태 기자

“실익쟁겼다” - “자율권 포기” 시각차 뚜렷 교구본사 주지모임 “합의 인정 못한다”

격 받아들이지 않는다.
조계종의 한 관계자는 “자연공원의 개정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찰의 기여도에 따른 입장료 일부의 지급문제를 정부와 조계종이 얼마나 설득력있게 조정할 것인지에 아직 과제가 남아있다.
자연공원에 개정 ‘개가’
이에반해 합의사항 1항인 ‘국립공원내에서 징수하는 문화재 관할료와 공원입장료의 조정은 조계종과 국립공원관리공단 및 관계기관이 협의한다. 협의된 문화재관할료와 공원입장료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는 대목은 상당부분 반론을 사고 있다.
이미 90년부터 정부 3개부처 장관이 행정 지침으로 약속했던 합동징수 원칙이 무너졌던 최근의 사례에 비추어 볼때 이 1항은 ‘협의’가 안되면 다시 분리징수를 할 수도 있고 법적으로 자율화된 인상권한을 일부 정부에 담보한 꼴’이어서 오히려 후퇴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에대해 조계종은 ‘협의라는 의미는 양측 모두가 최선의 결론을 얻어 합동징수를 원칙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협의된 요율에 한하여 합동징수한다고 못 박는 것은 장차 종단이 관할료 인상의 자율권을 행사하는데 상당한 걸림돌이 될수 있다는 분석이다.

◇기사법처 ‘묵어’ 합니다.

회가 지난 7월 1일자로 인정한 문화재 관할료 가운데 일부 사찰의 요율을 인하 조정할 것도 반론의 도마에 오르고 있다. 총무원은 “합의사항 5개사찰의 관할료가 1백원 내지 2백원씩 인하 조정된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까지 인상을 시행하지 못했던 백련사등 5개 사찰은 1백원 내지 3백원 인상조정 됐다”며 이 조정안은 당해사찰과 사전에 협의 된 것임을 강조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보장된 자율화에 따라 인상했던 요율이 한 푼이라도 인하조정된 것은 합의문 제1항의 맹점을 벌써부터 보여준 실례가 아니냐”는 반론이다.
총무원의 긍정적 자평과 교계 일각의 반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가장 높게 반대의사를 외치는 곳은 민족문화추진회를 위한 교구본사 주지모임이다.
이 모임의 회장 설소스님(불국사주지)은 16일 “총무원의 합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주지모임의 13일 결의사항을 추진할 방침을 시사했다. 한 합동징수사찰인 본사주지스님도 “굴욕적인 합의를 받아들일 수 없다. 24일 신홍사에서 열리는 주지모임에서 총무원을 강도 높게 규탄할 것이다”고 말했다.
본사주지스님들의 이같은 반응은 이번 합의를 둘러싼 조계종단의 내용을 예고하는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내용의 분위기는 벌써부터 감지되고 있다. 총무원과 본사주지모임 스님들이 정부와의 협의 직전에 만나 나눈 대화에 대해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총무원 기획실장 지홍스님은 “본사주지모

장의포교에 새바람이 불고있다. 부천 석왕사가 사찰차원에서 최초로 경내에 장례의례 종합법당을 개원했다. 또 (재)대한불교 보현원(0시장 도각스님)은 99년까지 경기도 양평 15만평에 사찰과 남골당 공원묘원등을 조성하고 있다. 국토이음에 대한 관심과 맞물려 장의포교에 관심이 급증하고 있는 조계종 불교계의 포교문화를 일구는 두 스님을 만났다. (편집자 주)

양평공원묘원 추진 도각스님

“타종교인도 죽으면 절로”

지난80년, 남골당등 화장장외에 대해 아무도 생각 못했을때 양평에 15만평의 부지를 확보하고 장의포교를 차츰차츰 추진해온 도각스님(보현원 이사장)은 근사한 서울사무실을 개원한 그날 과로로 병원에 입원, 참석조차 못했다. 스님의 노고를 지켜본 많은 축하객들은 안타까움과 감동으로 더큰 발전을 기원했다. 스님은 이 불사를 “죽으면 절로 간다”는 공구적인 포교를 위해 시작했다고 밝혔다.

- 17년동안 추진해온 일인데, 공사는 어느정도 진행됐습니까?
- 법적으로 정식허가까진 3년전입니다. 숙원불사지요... 현재 묘지조성이 약 30%정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 선견지명이 있었는 데 이 불사를 하시게된 직접적인 동기가 궁금합니다.
- 일본은 2차대전 패망후 8천명의 선교사가 들어왔으나 불교나라이니. 우리는 똑같은 시기에 그의 1%에 불과한 선교사가 왔음에도 기독교계통의 선교성과가 크게 나타난 현실입니다. 원인이 무엇일까 살펴보니 바로 절의 남골당이었습니다. 일본인은 죽으면 절로갑니다. 실사 다른 종교를 갖어도 결국 부처님꼴로 간다말이지요. 사찰의 공원묘원은 포교의 기폭제 역할을 합니다.
- 선구자는 외롭고 힘드신것입니다. 어려움도 크셨을텐데요.
- 물론 불사 규모가 크다보니 재정적인 어려움이 가장 난마였습니다. 그러나 사실 수행자로서 잘못된 고통은 숨어서 일해야하는 것입니다. 즉 이 불사가 당시만해도 혐오사업의 하나에 속하니 드러내고 설득하는데 무척 힘들었습니다.



〈위영란 기자〉

왕생극락전 개관 영담스님

“장례 서비스 새전기 마련”

- 교계 최초로 경내에 장례의례 종합법당 ‘왕생극락전’을 개관하셨는데 의의를 말씀해 주십시오.
- 인간에게 생사(生死)의 문제만큼 중요한 것도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 불교계는 이러한 사회적 현상적 문제를 소홀히 여겨 왔고, 때문에 입중에 임박해 개종하는 불자들이 지켜보기도 해야 했습니다. 왕생극락전은 장의에 대한 불교계 및 불자의 적극적인 실천을 이끌어내고 건전한 장례문화를 형성하는 초석이 될 것입니다.

- 왕생극락전의 규모와 부대시설 궁금합니다.
- 왕생극락전은 70평 단층법당에 임종법당 안락정토, 빈소 도솔천궁 2개소, 남골당 영묘각 4백기, 영안실 왕생당 2개소, 냉동보관소 4개소, 장의용품판매소, 사무실을 갖췄습니다.
- 일반 장의예식장과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 임종직전 부처님 곁에서 눈을 감을 수 있도록 꾸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임종전 사무국으로 연락하면 24시간 응급차가 출동, 이운사를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또 수의, 관 등 일부 소모품을 제외하고는 일체의 비용이 무료로, 기존 장례문화에 대한 부조리를 없애고자 했습니다. 수의 관 등이 시중가의 1/3에 불과하죠.
- 향후 장례서비스 계획에 대해 귀띔해 주신다면.
- 우선 열린공간으로서의 분위기 조성에 힘쓸 계획입니다. ‘108 상초회 자원봉사단’ 구성이 그 획을 같이 할 것 입니다. 그리고 99년이후 가족묘지를 마련해 무료로 사용토록 할 뿐만 아니라 2천년경에는 2~3만기 수용 대규모 남골당 건립을 추진해 명실상부한 장례서비스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도필선 기자〉

“참회하는 삶 위한 바람(願) 정진(力)”

현대불교 창간 3주년 철야기도

3천배 대법회

행사 안내

현대불교신문은 창간 3주년을 맞아 불교계와 예속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으로 “참회하는 삶”을 위한 3000배 바람(願) 정진(力) 대법회를 봉행합니다. 참회기도도량 삼각산 도선사(주지 동광)와 공동으로 주최하는 이 법회는 현대불교신문이 올해 연중으로 벌이고 있는 ‘참회하는 삶 살자’ 캠페인의 실천행사이기도 합니다.

3000배기도는 불자라면 간절한 발원의 성취를 위해 평생 한번쯤은 수행하고 싶어하는 신령의 상징입니다. 평소 3000배 기도원력이 있었지만 업무를 내지 못했거나 기회가 적절치 않았던 분 등 많은 분들이 동참해 3000배 인연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께 기도포를 드립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 · 도선사 후원: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입 제: 1997년 11월 1일(토) 오후4시
 △회 향: 11월2일(일) 오전5시(새벽예불후)
 △장 소: 참회도량 삼각산 도선사
 △참석인원: 사부대중 1천명(선착순)
 △등록비: 5천원
 △일 정
 입제식→5백배씩 하고 10분씩 휴식→저녁공양 간식공양→새벽예불→회향식
 △준비물: 수건, 작은 개인 물통, 따뜻한 겹옷
 △접 수: 현대불교신문 (02)737-8881
 △은행계좌: 국민은행 023-21-0631-145(예금주 최상철)
 (입금후 꼭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편: 지하철 4호선 수유역하차 3번출구로 나와 일반버스 6번, 6-1번을 타고 종점서 하차. 종점 맞은편에 도선사행 정버스 대기.
 * 가족이나 단체단위로 참가하시면 더욱 뜻깊을 것입니다.
 * 건강이 따라주지 않는 분들은 앉아서 동참하는 방편도 공덕이 된다고故 백선염스님은 몸소 실천해 보였습니다. 동참원력이 귀하다 하셨습니다.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대웅전 낙성식

■ 일시 : 1997년 10월 26일 11시
 ■ 장소 :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부처님의 집을 장엄함이 이 땅을 불국토로 바꾸는 첫걸음으로 알고, 대웅전 신축의 원을 세운 저희 한마음선원 제주 지원이, 대행 스님을 모시고 대웅전 낙성식을 열게 되었습니다. 무무 동참하시어 오늘의 이 법연을 함께 나눌 수 있기를 발원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지원장 해 해 합장
 신도회장 문경행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제주지원 제주도 제주시 영평동 1500번지 / 전화: 064-21-4662 / 팩스: 064-21-0302